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지원 최고위원, 한정에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문대일 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운 의원, 신영대 의원, 윤준병 의원, 박희승 의원, 안호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전북, “삼중 소외 딛고 도약” 결의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국회단계 대응 핵심사업·도정 주요 현안 논의 새만금 신공항 건립·하계올림픽 유치 등 총력

대한민국 변방이라는 오랜 수식어를 넘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로 우뚝 서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뜨거운 열정이 16일 오전 전북도청을 가득 채웠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북자치도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한정에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전북 국회의원인 이원택 도당 위원장 등 7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도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노홍석 행정부지사, 김중훈 경제부지사,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논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6년간 도민과 민주당이 힘을 모아 △전주 하계 올림픽 후보 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안 통과 △피지컬 AI 연구개발 생태계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음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미흡하게 반영된 전북의 숙원 사업들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1심 패소 판결로 비상이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문제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를

전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이유로 지목하며, “이재명 정부와 ‘윙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불과 2~3년 전 전북 예산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첫해의 첫 예산인 만큼 이번 협의회가 내년도 예산 확보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 발전의 동력을 이재명 정부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전북이 받아왔던 핏박과 아픔을 이재명 정부를 통해 도민들의 희망과 기쁨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정청래 당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전북도민의 뜨거운 열원을 전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을 “전북의 아들”이라 소개하는 사회자의 말에 자신이 전북의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고 전북 명

예도민증을 주셨으니 자신도 전북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위상과 신인도가 크게 올라갔고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넘어 5년 안에 5,000 달성도 가능한 것이라는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며, 전북 도민들이 겪는 ‘삼중 소외’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전북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인 9조4,585억원을 강조하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RE100 산지 조성 등 전북의 핵심 사업들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역설했다.

전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고 첫 외부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북 도민들의 마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농생명, 재생에너지, 문화 관광

자원 등 전북의 풍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겪는 ‘삼중 소외’의 아픔을 강조하며, “새만금 사업이 흔들리거나 예산이 삭감되면 도민들이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박 최고위원은 “균형 발전은 지정학적 정의”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정학적 정의가 오늘 전북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하며 전북의 열원이 중앙 정치권에 강력하게 전달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정에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의결되며 ‘지방 시대 위원장’이 참여한 것이 균형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 주도로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당의 변함없는 관심을 피력했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립후배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주요 국가예산 건의사업과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등 도정 주요 현안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중앙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고향사랑 기부하고 혜택도 받고’

전북자치도, 28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추석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기부자에게는 풍성한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전북특별자치도-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중 선착순 160명을 대상으로 한다. 당첨자에게는 도청이 직접 선별한 품질 좋은 햇농산물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며, 사과, 고춧가루, 꿀, 들기름 등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이 무작위로 발송될 예정이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 (ilovegohyang.go.kr)이나 금융기관 앱에서 ‘전북특별자치도-도청’을 선택해 기부와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또한, 전국 농협 창구를 직접 찾아가 기부하고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29일에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추가 증정되는 경품은 답례품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무료 배송된다.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우리지역 발전에 동참해주시는 감사한 기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사에 대한 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와, 24일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에서 대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 ‘심각’ 수준

지난 3년새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액 83% 가까이 폭증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지방세 고액 체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지난 3년 사이 무려 83% 가까이 폭증하며 지방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022년 778명에서 2024년(잠정) 1,334명으로 약 71.5% 증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274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약 82.8% 급증했다.

이는 전국적인 고액 체납 증가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소수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전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2024년(잠정) 기준 전북에서만 62명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7억원에 이른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1인 체납자는 조모씨로, 2건에 걸쳐 총 5억9,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고액 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 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체납징수 관계자는 도에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에 대해 지난 9월 초 온비드 공매제도를 통해 1차에 약 1억여원의 수익을 확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그리고 여유...

여기가 무주네!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